

[보도자료]

JP모간자산운용, '2012년 투자자 신뢰도 조사' 발표

“국내 펀드투자자, 기대수익 현실화되고 장기투자 인식 길어져”

- 1년 후 펀드 기대수익률 19.9%, 2010년 26.4%와 2011년 24.2%대비 현실화
- 장기투자에 대한 인식도 평균 71개월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 보여(2010년 59개월/ 2011년 61개월)
- 은퇴 후 희망 생활비 298만원, 50-60대 층의 평균 37.7%만이 준비한 것으로 응답
- 채권등 다양한 투자자산에 투자를 위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 투자환경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는 글로벌 경제의 영향으로 신중한 태도 보여

(2012.2.28-서울) JP모간자산운용코리아(대표 차승훈)가 국내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도 수준 및 펀드투자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JP모간 한국 투자자 신뢰도 조사'는 JP모간자산운용코리아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실시했으며, 2012년 1월 4일부터 1월 26일까지 전국 6대 도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5~65세 국내펀드 투자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펀드 가입 및 이용 태도]

이번 조사 결과, 펀드 투자자들은 기대수익률이 전년 대비 더욱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후 펀드의 기대수익률은 평균 19.9%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 (26.4%), 2011년 (24.2%) 대비 꾸준히 하락한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 시 '수익률'(40.1%)보다 '안전성'(59.9%)을 중시하는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2010년 (안전성 49.3%, 수익률 50.7%) 및 2011년 (안전성 55.5%, 수익률 44.5%) 이후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선택한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펀드 가입 시 정보 탐색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판매사 직원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문의'(60.6%)한 후 가입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여전히 타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2010년(73%)과 2011년(64.2%) 대비 그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펀드의 구성 내용, 수익률 등 주요 지표 조회 후 가입, '여러 펀드 상품의 주요 지표 등을 비교한 후 가입' 등 자발적인 정보탐색 및 상품 간 비교 응답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투자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에 비해 더욱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투자로 인식하는 기간은 '5년~7년 미만' 응답률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10년 이상'(25%)이란 응답률이 상승해 전체 평균 71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59.2개월)과 2011년(61.6개월)대비 대폭 상승하였다.

펀드 상품 선택 시 국내외 펀드 선호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국내 펀드' 선호도가 88.5%로, '해외 펀드'(11.5%) 대비 높은 수준이며, 국내펀드 선호자가 '해외펀드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해외 펀드의 위험성이 더 클 것 같아서'(31.4%), '해외펀드에 대해 잘 몰라서'(31.0%) 등 불안정성과 정보 부족의 원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문에 추가된 채권형 펀드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불과 15.5%의 펀드 투자자만이 채권 및 채권형 펀드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산의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로는 '채권형 펀드에 대해 잘 몰라서'(60.1%)가 가장 주된 이유였으며, '낮은 수익률'(19.9%), '판매사의 비권유'(11.6%) 등의 응답이 나타나 구체적인 교육, 안내, 홍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은퇴 생활 및 은퇴 준비 관련 태도]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은퇴 후 희망 생활비 수준과 실제 준비정도는 여전히 격차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평균 63세를 예상 은퇴시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은퇴 후 필요 생활비 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73.8% 수준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은퇴 후 월평균 생활비 수준은 평균 최소 208만원, 희망 수준은 298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퇴시기를 앞둔 '50대, 60대층'의 평균 37.7%만이 '충분히 또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로 응답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현재 노후를 위한 연금 상품 가입 현황으로는 '국민연금'(76.4%), '개인연금보험'(60.0%), '퇴직연금'(10.7%), '개인연금펀드'(10.2%), '개인연금신탁'(2.7%)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으며, 현재 연금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는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JP모간 한국 투자자 신뢰도 지수]

한편, 향후 6개월 후 '코스피 전망', '글로벌 경제환경', '국내 경제환경', '투자환경', '개인 금융자산가치', '금융투자 규모' 등 경제, 투자 관련 6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한 신뢰도 지수를 이용한 JP모간 한국 투자자 신뢰도 지수는 올해 99.5로 나타나 2010년(117.4) 및 2011년(116.1) 대비 하락하였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 미만일 경우, 6개월 후 투자환경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투자자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JP모간 한국 투자자 신뢰도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코스피 지수 및 금융자산가치에 대한 설문에서는 지수가 100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6개월 예상 코스피 지수는 평균 1867포인트로 응답했으나, 조사 당시 코스피 지수(2011년 종가 1826포인트)를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91.5로 나타나 작년 유럽재정위기가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금융투자 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67.9%)이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늘리겠다'는 응답률은 12.8%로 전년(22.3%) 대비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감소시키겠다'는 응답률은 19.4%로 전년 (10.2%) 대비 상승하여, 여전히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금융투자 규모를 감소한다는 응답자의 감소 이유로는 '소비자 지출이 증가할 것 같아서'(32%), '현재 금융 투자 실적이 좋지 않아서' (24.2%)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하여 JP모간자산운용코리아 차승훈 대표는 "투자자들의 장기투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과 기대수익률이 보다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자산의 쏠림 현상이 큰 점, 그리고 은퇴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향후 업계 차원에서 분산투자자와 은퇴를 고려한 장기 투자 정착 등 투자자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JP모간 자산운용도 앞으로 다양한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P모간자산운용

JP모간자산운용 (J.P. Morgan Asset Management)은 JP모간 체이스애크퍼니 그룹 (JPMorgan Chase & Co)의 자회사로서 전세계 유수의 기관투자자, 금융자문사,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P모간자산운용은 전세계적으로 1조 3,362 억 달러 규모의 자산 (2011년 12월31일 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41여 개 지역에 740명의 투자전문가를 포함, 1만8천 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JP모간자산운용은 200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세계적으로 입증된 투자운용 기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목적과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주식, 채권, 유동성, 통화, 부동산,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등 폭 넓은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

JP모간자산운용 마케팅팀 박지나 상무 (02-758-5925) / 박경진 부장 (02-758-5899)